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의사소통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Sex-role Attitude and Communication of Elderly Couples on Marital Satisfaction

임나현, 하규수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Na-Hyun Lim(glory@naver.com), Kyu-Soo Ha(ksh@hoseo.edu)

요약

본 연구는 노년기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태도와 의사소통,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성역할 태도(성역할 인식, 성 능력 인식)와 의사소통(긴밀한 관계, 배타적관계, 소극적 관계) 및 결혼 만족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2012년 6월 20일에서 7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총 37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에는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t-test 및 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성역할 태도, 의사소통 및 결혼 만족도에 부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성역할 인식과 성능력 인식은 의사소통의 긴밀한 관계와 소극적 관계에 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성능력 인식은 배타적 관계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성역할 인식과 긴밀한 관계는 결혼 만족도에 정(+)적 영향력을 보였으나, 배타적 관계와 소극적 관계는 결혼 만족도의 부(-)적 영향요인이었다.

■ **중심어** : | 노년기 부부 | 성역할 태도 | 의사소통 | 결혼 만족도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of the sex-role attitude, communic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according to a demographic factors as well as analyzed the relationship of the effects on sex-role attitude(sex-role awareness, sex-capacity awareness), communication(close relationship, exclusive relationship, passive relationship), and marital satisfaction of elderly couples.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20 to July 30, 2012 among the elderly couples aged 60 or older in the Gyeonggi-do areas, and 378 responses were used in the data analysis. The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were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t-test, ANOVA,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s, there were partially differences in the sex-role attitude, communic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sex-role awareness and sex-capacity awareness had a positive impact on close relationship and passive relationship of the communication. But the sex-capacity awareness had a negative impact on exclusive relationship of the communication. In addition, The sex-role awareness and close relationship had a positive impact on marital satisfaction, but exclusive relationship and passive relationship had a negative impact on marital satisfaction of elderly couples.

■ **keyword** : | Elderly Couples | Sex-role Attitude | Communication | Marital Satisfaction |

I. 서론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결혼 지속 년 수가 늘어나면서 노년기 부부의 결혼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및 노인의 독립적 생활욕구로 인해 자녀들의 출가와 은퇴이후에 노부부만 생활하는 노인가구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황혼이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황혼이혼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년기의 부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접근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1].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후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 이른바 '황혼이혼'이 2006년 19.1%에서 2008년 23.1%, 2010년 23.8%로 증가세를 보이고, 대법원이 발행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1년에는 24.8%인 것으로 나타났다[2]. 수십 년 간 인생의 동반자로 살다가 늘그막에 새 삶을 선언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황혼이혼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이유는 첫째,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가부장제에 의해 지배되어 왔기 때문[3]이다. 이혼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결혼이 정상적이고 이혼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이원화 시켜서 이혼을 부정적인 행위로만 보았다. 그러나 이혼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런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4].

둘째, 가족적 차원에서 볼 때 역기능적인 요인이 있고 생활주기에 따른 요인이 있으며, 남편의 은퇴 후 재적용 문제를 들 수 있다. 은퇴하기 전의 부부는 각자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리된 영역과 활동 영역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명확한 경계가 은퇴로 인해 없어지게 되면서 남편이 부인의 영역에 침범하게 되고, 그로 인한 갈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마음에 서린 한, 자아실현의 욕구,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문제들과 자녀의 양육의 부담감에서 벗어나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5].

이러한 황혼이혼의 원인들을 해소하고 결혼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성역할 태도와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중

요하다[6].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부간의 여가공유, 역할의 균등, 의사소통, 부부갈등, 상호지지, 역할공유와 분담, 성생활만족도 등의 단편적인 변인들과 삶의 만족도[7], 결혼의 질[8], 심리적 복지감[9] 등의 관계를 다루고 있지만, 노년기 부부관계의 성역할 태도와 의사소통 및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부족하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의사소통에 대해 알아보고, 성역할 태도와 의사소통 및 결혼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황혼이혼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변인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노년기부부의 결혼관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노년기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성역할 태도, 의사소통 및 결혼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는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의사소통은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고찰

1. 노년기 부부관계

과거전통사회에서 한국가족의 중심은 부자관계였고, 여성은 대를 이을 남자를 출산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부부관계는 부자관계를 위한 관계로서 부차적인 의미를 지녔으나, 오늘날 가족의 중심은 부부에게로 그 축이 옮겨졌다. 노년기의 부부는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나 자기의 생활을 가질 수 있다.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워 그들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만족감에서 새삼 진실한 동반의식을 갖게 되고 더욱 서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된다. 또한 배우자의 은퇴는 노부부들이 자신들의 생활방식이나 개인적으로 혹은 함께 시간

을 보내는 방법과 앞으로의 재정적인 면에서의 계획 수립 등으로 새로운 적응을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 [10][11].

노년기의 배우자는 인생의 동반자일 뿐 아니라 몸이 아플 때 최우선의 가족 부양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결혼만족도는 노인의 생활만족도, 행복, 건강, 장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13-15]. 노년기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성공적인 노화와 집결되기 때문에 조화로운 부부관계는 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의 삶의 만족 및 성공적인 노화의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12][13].

노년기 부부관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갈등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14][15]나 부부관계와 심리적 복지감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16][17], 부부의 결혼만족도 및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8][19] 등이 이루어져 왔으며, 김수진[20]은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성역할 태도, 성생활만족이 중요한 요인인지를 확인하면서 조화로운 부부간의 적응은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개인의 만족이나 자아통합감을 갖게 하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2. 성역할 태도

성역할 태도는 가정 내 역할의 성별 분리에 대한 주관적인 지지정도[21]를 의미하며,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이나 여성 혹은 남성의 역할 및 특성에 대한 개인의 태도[20]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 전통적인 태도(traditional attitude)는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엄격히 분리시키는 이분법적인 태도를 말하고, 근대적 태도(modern attitude)는 성역할 내용의 융통성을 지향하는 태도를 나타낸다[1].

성역할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아내 또는 남편이 각자의 역할에 대하여 전통적인 기대를 갖는가와 근대적인 기대를 갖는가에 따라 전통적 성역할 태도, 근대적 성역할 태도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김수진[20]은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를 성능력 인식도와 성역할 인식도의 2가지 하위영역으로 분석하였다. 성능력 인식도는 일상생활에서 타고난 능력이나 장점·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적 믿음을 의미하고, 성역할 인식도는

일상생활에서 부부간에 성별에 따른 역할 차이를 인지하는 개인적 믿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김수진[20]의 분석 틀을 기준으로 하여 성역할 태도를 성능력 인식과 성역할 인식의 2가지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김정순[22]은 성역할 태도의 개념을 “남녀에게 어떤 행동이 적절하고 만족스러운가에 대해서 내재화된 가치와 신념”으로 보고 성역할태도에 따라 전통적 여성과 비전통적 여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통적 여성의 역할을 남성의 역할에 종속되고, 가족에 대한 책임이 개인적 성취에 우선한다고 언급하였으며, 비전통적인 여성은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욕구를 인정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성역할 태도는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결혼 초부터 전통적 성역할 분담에 익숙해 있던 부부는 남편이 은퇴한 후의 가사참여나 가족에 관한 역할수행 등에 익숙하지 않으며, 이것은 부부 모두에게 당혹감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부부가 상호 의존적이고 평등한 관계에서 역할분담을 하고, 부부간의 동료애가 높을 때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 [23].

성역할 태도와 결혼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결혼 만족도 및 부부친밀감을 높이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수진[20]에 의하면 노년기에는 배우자에 대한 역할 기대와 역할수행의 일치정도가 높을수록, 우애적인 결혼에 대한 태도를 가질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았고, 전해성, 서미아 [24]는 중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결혼만족도의 영향요인이라고 하였으며, 이은주[25]는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 성역할 태도와 의사소통이 영향요인임을 밝혔다.

그러나 김영혜[26]의 연구에서는 성역할 태도와 생활만족도 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박연옥[1]에 따르면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부부친밀감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역할 태도와 결혼 만족도에 관해서는 동일한 연구결과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의 영향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진행되어 온데 반

해, 성역할 태도와 의사소통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한편, 학력과 자녀수에 따라 성역할 태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25].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는 성별, 연령, 자녀수, 동거 가족수, 별거여부, 건강상태, 학력, 직업유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별거를 안하는 경우보다 별거를 하는 노부부들이 성역할 태도를 더 높게 인식할 뿐 아니라 연령이 낮거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부부들의 성역할 태도에 대한 인식이 더 높다[20]. 연령이 낮을 때 평등주의 태도를 가지며[27], 연령이 낮을수록 전통적 여성역할인 가사노동에 불만족하고 근대적이라고 보고 있었다[28]. 그러므로 노년기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역할 태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3.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란 가족 행동의 기본적 양상으로서 가족의 목표 설정, 목표 성취, 그리고 가족 행동의 통합에 매우 중요하다[29]. 부부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인 상호관계를 필요로 하고, 이러한 상호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보편적인 요소가 의사소통이다[30]. 이를 근거로 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을 결혼 만족도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의사소통의 부조화는 부부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31].

Spanier 등[32]의 결혼 안정성과 질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부부사이에 자신에 대한 의사표현을 많이 할수록,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수록, 그리고 서로의 감정이입이 많을수록 결혼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부부간 의사소통은 부부만족과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의 핵심이고, 신뢰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33], 모의희, 김재환[34]의 연구에서는 아내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남편의 부부적응이 증가하지만 아내의 부부적응에 대한 남편의 의사소통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모의희, 김재환[34]에 의하면 의사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분석되며, 일부 연구[25]에서는 부부의 의사소통을 말하기(포현하기), 듣기(이해와 공감하기), 문제 및 갈등해결능력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의사소통을 단일 차원

에서 접근하고 있어 의사소통의 다양한 하위영역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년기 부부의 의사소통을 긴밀, 소극 및 배타적 관계에서 분석한 선행연구[20]를 의사소통의 분석 틀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부부간 상호작용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갈등발생시 갈등해결의 중요한 방법이며[35], 부부친밀감을 높이는 요소이다[36]. 조혜숙, 최수일[17]은 친밀감과 의사소통이 서로 상호관련이 있는 요인이고 부부간에 친밀하게 지낼수록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박연옥[1]은 노년기 부부의 친밀감을 인지적 친밀감, 정서적 친밀감, 성적 친밀감으로 구분한 다음 이들 친밀감과 의사소통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노년기 부부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인지적, 정서적 및 성적 친밀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친밀감은 부부의 결혼 만족도와 관련된 요소이므로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친밀감을 이끌어 결국에는 결혼 만족도를 높인다고 볼 수 있다.

김수진[20]은 부부간 의사소통의 내용보다는 특성과 양상, 방식을 반영하여 부부들이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는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노년기 부부의 의사소통을 긴밀적 관계, 소극적 관계, 그리고 배타적 관계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요소로 구성된 부부간 의사소통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결혼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임을 밝혔고,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생생활 만족이 매개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적 특성인 성별, 학력, 자녀수, 동거 가족수, 배우자와의 별거유무 등에 따라 부부들의 의사소통이 다르게 나타나 노년기 부부의 의사소통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년기의 부부는 충분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서로 일치하지 않는 면을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이해는 물론 배우자가 무엇을 의사소통 하려는 지에 대한 정확한 지각이 필요하다. 원활한 의사소통은 배우자에게 친밀감을 느끼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서 동등하고 민주적인 부부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부부간 의사소통이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정보와 의사

를 교환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부부의 의사소통은 부부만족과 원만한 부부관계유지의 핵심이며 신뢰감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과거의 확대가족에서보다 현대의 핵가족에서 부부의 결혼생활 적응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핵가족의 성립 및 존속이 전적으로 부부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37].

4. 결혼 만족도

결혼생활에서 부부관계의 특징이나 질을 파악하기 위한 결혼 만족도(marital satisfaction)라는 개념은 결혼 적응도(marital adjustment), 결혼 행복도(marital happiness), 결혼 성공도(marital succession), 결혼 안정성(marital stability) 등 유사한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결혼 만족도는 결혼생활 전반에 부부의 행복과 다양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관적 감정 및 태도[38]를 뜻하며, 결혼에 대해서 개인이 가진 기대를 충족하는 정도 혹은 긍정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즉, 객관적으로는 상황이 동일할지라도 개인이 중요시하는 영역이 기대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혼 만족도는 낮아지고, 기대수준이 충족될 경우 결혼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온 삶의 조건과 경험 뿐 아니라 현재의 생애발달단계에 따라 결혼에 대한 기대수준 및 기대영역이 다를 수 있다[39].

부부간의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결혼 만족도는 신혼기에 가장 높다가 중년기, 노년기를 통해 계속 낮아진다는 결과와 처음에는 높다가 낮아져서 자녀들이 집을 떠난 '빈 둥우리기'에 다시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Lee[40]는 조기에 결혼한 부부의 경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결혼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 반면, 또 다른 연구[41]에서는 결혼 초반에는 결혼 전의 기준과 실제의 결혼생활을 비교함으로써 결혼 만족도가 낮아지지만 결혼생활이 오래 지속되면 상대방에게 적응하여 타성으로 살아간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혼 만족도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 결혼 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남성은 결혼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반해 여성은 결혼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지적[42]도 있다.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부부역할 분담과 성역할 태도[20][43], 부부관계[18], 성격[44], 의사소통 능력[45], 인구사회학적 변인[39][46] 등이 있으며, 결혼이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위한 연구에서 결혼의 질은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져 왔다[44]. Myer와 Diener[47]에 의하면 결혼생활의 만족은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결혼생활에 불만족할 경우 여러 가지 부적응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노년기 부부는 은퇴 후 함께 지내는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결혼생활 기간 동안 겪어 본 적이 없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11]. 즉, 서로 상호작용이 많아져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상대방의 진가를 알게 되어 서로 가까워지거나 친밀하게 될 수 있지만,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익숙하지 않게 되면 긴장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부부간의 대화가 필수적이고 상호간의 역할분담이나 공통의 화제, 취미를 갖는 것이 노년기의 결혼만족을 위해서 필요하다[48].

따라서 노년기 부부가 상호 의존적이거나 평등한 관계에서 역할 분담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부부 모두의 결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부부의 결혼 만족도 영향요인으로 성역할 태도와 의사소통을 고려하였고, 이들 요소들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III. 연구 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설문지는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의사소통, 결혼 만족도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성역할 태도의 측정항목은 Osmomd와 Martin(1975)의 Sex Role Orientation Scale, Mason과 Bumpass(1983)의 Gender Role Attitude Scale 등을 참조한 선행연구[20][24]와 부부역할에 관한 연구[39]에서 발췌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상

생활에서 성별로 타고난 능력과 강점 및 단점이 있다고 인식하는 성능력 인식과 부부간에 성별에 따른 역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성역할 인식에 관한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이나 성능력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성역할 인식 0.811, 성능력 인식 0.771로서 신뢰성이 높은 수준이었다.

부부간 의사소통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의사소통을 측정한 연구[1]와 말하기(표현), 듣기(이해와 공감), 문제 및 갈등해결의 측면에서 측정한 연구[25], 그리고 긴밀한 관계, 배타적 관계 및 소극적 관계를 토대로 한 연구[20] 등을 참조하여 문항을 발췌하였다. 특히 서로에 대해 긍정적이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해 준다고 여기는 긴밀한 의사소통,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우호적이지 않고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호소하는 배타적 의사소통,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소극적 의사소통에 관한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0.772-0.899로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결혼 만족도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만족 정도에 관한 총 7문항을 선행연구[18][20]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성역할 인식 0.840으로서 신뢰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유무, 종교 유무, 배우자와 별거/각방 유무, 자녀동거 유무, 결혼생활 유지기간, 건강상태 및 생활수준에 관해서는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경기도 남부지역

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년기 부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6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사회복지관, 노인대학, 평생교육관,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한 다음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 총 400부 중에서 결측값이 없는 총 378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태도, 의사소통 및 결혼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t-test)과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으며, Scheffé test를 사용하여 사후검증을 하였다. 셋째,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 의사소통 및 결혼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남성이 160명(42.3%), 여성이 218명(57.7%)이었고, 연령은 60-64세 105명(27.8%), 65-69세 101명(26.7%), 70-74세 80명(21.2%), 75세 이상 92명(24.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초등학교이하 155명(41.0%), 중학교 졸업 74명(19.6%), 고등학교 졸업 65명(17.2%) 대학교 졸업이상 84명(22.2%)이었다. 직업은 없다 264명(69.8%), 있다 114명(30.2%)이었으며, 종교는 없다 114명(30.2%), 있다 264명(69.8%)으로 종교를 가진 응답자가 더 많았다. 배우자와 별거/각방 유무는 아니다 256명(67.7%), 그렇다 122명(32.3%)이었고,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227명(60.1%), 함께 산다는 151명(39.9%)이었으며, 결혼생활 유지기간은 30년 미만 61명(16.2%), 30-40년 미만 103명(29.2%), 40-50년 미만 139명(36.8%), 50년 이상 75명(19.8%)이 응답하였다. 건강상태는 나쁘다 78명(20.6%), 보통이다 240명(63.5%), 좋다 46명(12.2%)으로서 보통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78)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60	42.3
	여성	218	57.7
연령	60-64세	105	27.8
	65-69세	101	26.7
	70-74세	80	21.2
	75세 이상	92	24.3
학력	초등학교 졸업이하	155	41.0
	중학교 졸업	74	19.6
	고등학교 졸업	65	17.2
	대학교 졸업이상	84	22.2
직업 유무	없다	264	69.8
	있다	114	30.2
종교 유무	없다	114	30.2
	있다	264	69.8
별거/각방 유무	아니다	256	67.7
	그렇다	122	32.3
자녀동거 유무	함께 안 산다	227	60.1
	함께 산다	151	39.9
결혼생활 유지기간	30년 미만	61	16.2
	30-40년 미만	103	27.2
	40-50년 미만	139	36.8
건강상태	50년 이상	75	19.8
	나쁘다	78	20.6
	보통이다	163	43.2
생활수준	좋다	137	36.2
	어렵다	92	24.3
	보통이다	240	63.5
	좋다	46	12.2

IV. 연구 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태도, 의사소통 및 결혼 만족도 차이

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태도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학력, 종교 유무, 자녀동거 유무, 결혼생활 유지기간 및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2].

성역할 인식은 여성보다 남성이, 60~64세에 비해서 75세 이상에서,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는 있는 집단에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부에 비해서 함께 살고 있는 부부들이, 결혼생활을 30~40년 미만동안 유지한 부부보다는 30년 미만 혹은 50년 이상 기간 동안 유지한 부부들이, 그리고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보다는 나쁘거나 보통인 집단에서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성능력 인식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초등학교 졸업이하에 비해서

는 중학교 졸업에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부보다는 동거하고 있는 부부들이, 결혼생활을 30~40년 미만동안 유지한 부부에 비하여 30년 미만 유지한 부부들이,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보다는 보통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집단에서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차이분석 결과

구분	성역할 인식			성능력 인식			
	M	SD	t/F	M	SD	t/F	
성별	남성(n=160)	3.02	.77	2.02*	3.05	.85	2.92**
	여성(n=218)	2.85	.79		2.80	.80	
연령	60-64세(n=105)	2.76	.84	4.41**	2.84	1.06	0.62
	65-69세(n=101)	2.85	.83		2.88	.77	
	70-74세(n=80)	2.99	.71		2.99	.62	
	75세이상(n=92)	3.13	.67		2.93	.77	
학력	초졸이하(n=155)	2.93	.86	0.33	2.76	.85	3.24**
	중졸(n=74)	2.98	.81		3.10	1.00	
	고졸(n=65)	2.85	.68		3.00	.59	
	대졸이상(n=84)	2.93	.67		2.91	.76	
종교 유무	없다(n=114)	2.76	.91	-2.39**	2.80	.99	-1.40
	있다(n=264)	2.99	.71		2.95	.75	
자녀 동거 유무	함께안산다(n=227)	2.84	.74	-2.43*	2.80	.81	-3.03**
	함께산다(n=151)	3.05	.83		3.06	.84	
결혼 생활 유지 기간	30년미만(n=61)	3.05	.84	3.25**	3.10	.98	3.98**
	30-40년미만 (n=103)	2.75	.86		2.68	.87	
	40-50년미만 (n=139)	2.91	.74		2.97	.78	
	50년이상(n=75)	3.07	.66		2.91	.67	
건강 상태	나쁘다(n=78)	3.09	.76	11.97***	3.07	.79	9.87***
	보통이다(n=163)	3.06	.73		3.03	.69	
	좋다(n=137)	2.67	.79		2.66	.94	

* $p < .05$, ** $p < .01$, *** $p < .001$

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3]에서처럼 성별, 학력, 배우자와 별거/각방 유무, 결혼생활 유지기간, 건강상태 및 생활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여성보다는 남성이, 초등학교 졸업이하에 비해서 그 이상의 학력집단이, 배우자와 별거나 각방을 쓰는 부부보다 그렇지 않은 부부가, 생활수준이 어려운 부부에 비해 보통인 집단에서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긴

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둘째, 의사소통의 배타적 관계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고등학교 졸업에 비해서는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배우자와 별거나 각방을 쓰지 않는 부부보다는 현재 별거 혹은 각방을 사용하고 있는 부부들이, 생활수준이 보통이거나 좋은 집단에 비해서는 생활이 어려운 집단에서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셋째, 의사소통의 소극적 관계는 배우자와 별거 혹은 각방을 쓰는 부부들이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고, 결혼생활 유지기간이 30~40년 미만된 부부에 비해서 30년 미만된 부부들과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보다는 보통인 집단에서 부부간에 소극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의 차이분석 결과

구분	긴밀한 관계			배타적 관계			소극적 관계					
	M	SD	t/F	M	SD	t/F	M	SD	t/F			
성별	남성(n=160)	3.49	.80	3.87**	3.23	.89	-3.33**	2.99	.93	-0.80		
	여성(n=218)	3.15	.86		3.52	.83		3.06	.83			
학력	초졸이하(n=155)	3.13	.92	3.87**	3.58	.87	8.63***	2.99	.86	0.36		
	중졸(n=74)	3.47	.93		3.47	.86		3.11	1.05			
	고졸(n=65)	3.31	.84		a)b	2.96		.95	a)b		3.03	.83
	대졸이상(n=84)	3.43	.59			3.33		.64			3.04	.75
별거/각방유무	아니다(n=256)	3.52	.74	8.27***	3.25	.87	-4.78***	2.90	.83	-4.42***		
	그렇다(n=122)	2.81	.88		3.70	.78		3.31	.88			
건강상태	나쁘다(n=78)	3.22	.93	0.42	3.53	.98	1.09	3.10	.89	5.26***		
	보통이다(n=163)	3.33	.78		3.36	.85		a)	3.16		.77	
	좋다(n=137)	3.29	.89		3.36	.82			2.84		.94	
생활수준	어렵다(n=92)	3.04	.95	6.24***	3.75	.94	10.97***	2.98	1.02	0.26		
	보통이다(n=240)	3.40	.81		a)b	3.27		.82	3.04		.82	
	좋다(n=46)	3.22	.79			3.37		.78	3.07		.81	

* $\rho < .05$, ** $\rho < .01$, *** $\rho < .001$

1.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 만족도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성별, 학력, 종교 유무, 배우자와 별거/각방 유무, 건강상태 및 생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이, 초등학교 졸업이하에 비해서는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집단에서,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는 있는 집단이,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각방을 쓰고 있는 부부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부들이, 건강상태가 나쁜 부부에 비해서는 보통인 부부들이, 그리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집단보다는 보통이거나 좋은 집단에서 결혼만족도가 더욱 높았다.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 만족도의 차이분석 결과

구분	결혼만족도			
	M	SD	t/F	
성별	남성(n=160)	3.67	.85	5.21***
	여성(n=218)	3.18	.92	
학력	초졸이하(n=155)	3.22	.98	4.58**
	중졸(n=74)	3.50	.97	
	고졸(n=65)	3.32	.93	
	대졸이상(n=84)	3.65	.66	
종교유무	없다(n=114)	3.24	.93	-2.09*
	있다(n=264)	3.45	.91	
별거/각방유무	아니다(n=256)	3.63	.81	8.01***
	그렇다(n=122)	2.88	.93	
건강상태	나쁘다(n=78)	3.18	.84	3.49*
	보통이다(n=163)	3.51	.92	
	좋다(n=137)	3.36	.95	
생활수준	어렵다(n=92)	3.03	.92	9.51***
	보통이다(n=240)	3.51	.87	
	좋다(n=46)	3.44	1.02	

* $\rho < .05$, ** $\rho < .01$, *** $\rho < .001$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노년기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성역할 태도, 의사소통 및 결혼 만족도에 부분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결과를 제시하면, 김수진[20]의 연구는 별

거 유무에 따라 성역할 태도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별거/각방 유무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이 연구[20]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성역할 태도에 대한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반해, 본 연구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의 인식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와 차별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조사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2.1 성역할 태도가 의사소통의 긴밀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의사소통의 긴밀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성역할 태도(성역할 인식, 성능력 인식)를 독립변수로 하고 의사소통의 긴밀한 관계를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1단계에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한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은 6.545로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결정계수 R^2 는 .151로 긴밀한 관계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전체 설명력은 15.1%였다. 분석 과정에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한 결과 VIF 값이 1.096~1.799로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사소통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성별($t = -2.008, p < .05$)과 별거/각방 유무($t = -6.738, p < .00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성역할 태도의 성역할 인식, 성능력 인식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8.366으로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결정계수 R^2 가 .216으로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이 21.6%로 나타나 1단계보다 6.5%($\Delta R^2 = .065$) 증가하였다. 분석 과정에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VIF 값이 1.099~1.827로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배우자와 별거/각방 유무($t = -7.243, p < .001$)만이 의사소통의 긴밀한 관계

에 부(-)적 영향을 줌으로써 부부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별거 혹은 각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성역할 태도의 경우 성역할 인식($t = 5.133, p < .001$)과 성능력 인식($t = 2.218, p < .05$) 모두가 의사소통의 긴밀한 관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성역할 인식($\beta = .251$), 성능력 인식($\beta = .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성역할 태도가 긴밀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β	t	β	t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성별 ¹⁾	-.120	-2.008*	-.057	-0.969
	연령	.047	0.729	.005	0.080
	학력	.015	0.265	.040	0.711
	직업 유무 ²⁾	-.044	-0.759	-.045	-0.801
	종교 유무 ³⁾	-.001	-0.020	-.054	-1.022
	별거/각방 유무 ⁴⁾	-.344	-6.738***	-.357	-7.243***
	자녀동거 유무 ⁵⁾	-.031	-0.612	-.060	-1.213
	결혼생활유지기간	-.015	-0.251	-.004	-0.070
	건강상태 생활수준	.036 .043	0.701 0.838	.019 .041	0.371 0.811
성역할 태도	성역할 인식			.251	5.133***
	성능력 인식			.108	2.218*
F		6.545***		8.366***	
R ²		.151		.216	
ΔR^2				.065	

* $p < .05$, *** $p < .001$

¹⁾성별(남성=0, 여성=1), ²⁾직업 유무(없다=0, 있다=1), ³⁾종교 유무(없다=0, 있다=1), ⁴⁾별거/각방 유무(아니다=0, 그렇다=1), ⁵⁾자녀동거 유무(안산다=0, 산다=1)

이 결과는 가정에서의 부부의 역할, 특히 남편과 아내의 전통적인 역할과 능력에 대해 확고하게 인지하여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이, 집안 살림은 아내가 책임져야 할 뿐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이나 직장생활,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남성이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노년기 부부일수록 상호 간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의사소통이 보다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2.2 성역할 태도가 의사소통의 배타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의사소통의 배타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성역할 태도(성역할 인식, 성능력 인식)를 독립변수로 하고 의사소통의 배타적 관계를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1단계에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한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은 3.585로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결정계수 R^2 는 .089로 배타적 관계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전체 설명력은 8.9%였다. 분석 과정에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없었으며, VIF값이 1.096~1.799로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으며, 의사소통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회귀 분석 결과, 성별($t=2.099$, $p < .05$)과 학력($t=-2.047$, $p < .05$), 생활수준($t=-2.852$, $p < .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성역할 태도의 성역할 인식, 성능력 인식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3.571로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결정계수 R^2 가 .105로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이 10.5%를 보여 1단계보다 1.6%($\Delta R^2=.016$) 증가하였다.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한 결과 VIF값이 1.099~1.827로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성별($t=2.023$, $p < .05$)은 정(+)적 영향력을, 생활수준($t=-2.719$, $p < .01$)은 부(-)영향력을 보였다. 성역할 태도에서는 성역할 인식을 제외한 성능력 인식($t=-2.258$, $p < .05$)만이 부부간 의사소통의 배타적 관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이 아내보다 경제적인 능력이나 작업 능력, 지도자로서의 능력 등이 높아야 한다고 인지하는 노부부들은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배타적이지 않은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성역할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의사소통을 높이는데 효율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표 6. 성역할 태도가 배타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β	t	β	t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성별 ¹⁾	.130	2.099*	.127	2.023*
	연령	-.038	-0.575	-.042	-0.631
	학력	-.123	-2.047*	-.108	-1.788
	직업 유무 ²⁾	.080	1.345	.087	1.457
	종교 유무 ³⁾	-.068	-1.213	-.075	-1.312
	별거/각방 유무 ⁴⁾	.072	1.355	.078	1.478
	자녀동거 유무 ⁵⁾	.028	0.531	.041	0.777
	결혼생활유지기간	-.064	-1.001	-.058	-0.920
	건강상태	-.003	-0.053	-.013	-0.229
	생활수준	-.153	-2.852**	-.146	-2.719**
성역할 태도	성역할 인식			.056	1.066
	성능력 인식			-.132	-2.258*
F		3.585***		3.571***	
R^2		.089		.105	
ΔR^2				.016	

* $p < .05$, ** $p < .01$, *** $p < .001$

¹⁾성별(남성=0, 여성=1), ²⁾직업 유무(없다=0, 있다=1), ³⁾종교 유무(없다=0, 있다=1), ⁴⁾별거/각방 유무(아니다=0, 그렇다=1), ⁵⁾자녀동거 유무(안 산다=0, 산다=1)

2.3 성역할 태도가 의사소통의 소극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의사소통의 소극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성역할 태도(성역할 인식, 성능력 인식)를 독립변수로 하고 의사소통의 소극적 관계를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7]에서처럼 1단계에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한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은 3.357로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결정계수 R^2 는 .084로 소극적 관계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전체 설명력은 8.4%였다. 분석 과정에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한 결과 VIF값이 1.096~1.799로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배우자와의 별거/각방 유무($t=3.708$, $p < .001$), 건강상태($t=-2.468$, $p < .05$) 및 생활수준($t=2.112$, $p < .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

표 7. 성역할 태도가 소극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β	t	β	t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성별 ¹⁾	.016	0.257	.083	1.425
	연령	.048	0.712	.011	0.181
	학력	.080	1.324	.100	1.800
	직업 유무 ²⁾	.087	1.459	.079	1.450
	종교 유무 ³⁾	.049	0.876	.024	0.453
	별거/각방 유무 ⁴⁾	.197	3.708***	.170	3.497**
	자녀동거 유무 ⁵⁾	.065	1.249	.007	0.153
	결혼생활유지기간	.031	0.480	.042	0.712
	건강상태	-.133	-2.468*	-.032	-0.637
	생활수준	.114	2.112*	.106	2.047*
성역할 태도	성역할 인식			.316	6.561***
	성능력 인식			.294	6.154***
F		3.357***		9.709***	
R ²		.084		.242	
ΔR^2				.158	

* α .05, ** α .01, *** α .001

¹⁾성별(남성=0, 여성=1), ²⁾직업 유무(없다=0, 있다=1), ³⁾종교 유무(없다=0, 있다=1), ⁴⁾별거/각방 유무(아니다=0, 그렇다=1), ⁵⁾자녀동거 유무(안산다=0, 산다=1)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성역할 태도의 성역할 인식, 성능력 인식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9.709로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결정계수 R^2 가 .242로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이 24.2%를 보여 1단계보다 15.8%($\Delta R^2 = .158$) 증가하였다.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VIF값이 1.099~1.827로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배우자와의 별거/각방 유무($t = 3.497, p < .01$)와 생활수준($t = 2.047, p < .05$)이 의사소통의 소극적 관계에 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따라서 노년기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적극적이고 진실된 감정을 배우자에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이나 성능력에 대해 너무 강하게 분리해서 인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부부간 의사소통의 긴밀한 관계에도 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성역할 태도를 적절한 수준에서 인지하는 것이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효율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노년기 부부가 인식하는 성역할 태도는 의사소통의 영향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성역할 태도와 의사소통 간의 관계를 간과하여 왔으므로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과 성역할 태도 간의 영향관계를 밝힌 것은 노년기의 부부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의사소통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표 8]은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성역할 태도, 의사소통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결혼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1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13.221로서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결정계수 R^2 는 .265로 결혼만족도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전체 설명력은 26.5%였다. 분석 과정에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한 결과 VIF값이 1.096~1.799로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학력과 자녀동거 유무, 건강상태를 제외하고 성별($t = -5.398, p < .001$), 연령($t = 2.025, p < .05$), 직업 유무($t = -3.632, p < .001$), 종교 유무($t = 2.987, p < .01$), 배우자와의 별거/각방 유무($t = -6.894, p < .001$), 결혼생활 유지기간($t = -2.268, p < .05$) 및 생활수준($t = 2.584, p < .01$)이 결혼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성역할 태도의 성역할 인식, 성능력 인식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11.996으로 $p < .001$ 에서 유의하였고, 결정계수 R^2 가 .283으로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이 28.3%로 나타나 1단계보다 1.8%($\Delta R^2 = .018$) 증가하였다.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에 의하면 VIF값이 1.099~1.827로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성별($t = -4.788, p < .001$)과 직업 유무($t = -3.642, p < .001$), 종교 유무($t = 2.403, p < .05$), 별거/각방 유무($t = -7.054, p < .001$), 결혼생활 유지기간($t = -2.164, p < .05$) 및 생활수준($t = 2.615, p < .01$)이 결혼 만족도의 영향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태도의 요인 중에서는 성능력 인식을 제외하고 성역할 인식

($t=3.005, p<.001$)만이 결혼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성역할 태도와 의사소통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¹⁾	-.301	-5.398***	-.270	-4.788***	-.191	-4.636***
	연령	.122	2.025*	.099	1.660	.085	1.954
	학력	-.011	-0.206	-.005	-0.096	-.022	-0.566
	직업 유무 ²⁾	-.195	-3.632***	-.194	-3.642***	-.132	-3.406**
	종교 유무 ³⁾	.151	2.987**	.122	2.403*	.133	3.603***
	별거/각방 유무 ⁴⁾	-.327	-6.894***	-.333	-7.054***	-.070	-2.064*
	자녀동거 유무 ⁵⁾	.036	0.763	.024	0.522	.068	1.856
	결혼생활유지기간	-.130	-2.268*	-.123	-2.164*	-.125	-3.032**
	건강상태	-.007	-0.154	-.017	-0.340	-.004	-0.110
	생활수준	.135	2.584**	.125	2.615**	.089	2.529*
성역할 태도	성역할 인식			.141	3.005**	.068	1.820
	성능력 인식			.025	0.545	.005	0.145
의사소통	긴밀한 관계					.594	16.312***
	배타적 관계					-.221	-6.501***
	소극적 관계					-.202	-5.476***
F		13.221***		11.996***		40.569***	
R ²		.265		.283		.627	
ΔR^2				.018		.344	

* $p<.05$, *** $p<.001$

¹⁾성별(남성=0, 여성=1), ²⁾직업 유무(없다=0, 있다=1), ³⁾종교 유무(없다=0, 있다=1), ⁴⁾별거/각방 유무(아니다=0, 그렇다=1), ⁵⁾자녀동거 유무(안산다=0, 산다=1)

3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성역할 태도(성역할 인식, 성능력 인식), 의사소통(긴밀한 관계, 배타적 관계, 소극적 관계)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40.569로서 $p<.001$ 에서 유의하였고, 결정계수 R²가 .627로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이 62.7%로 나타나 2단계보다 34.4%($\Delta R^2=.344$)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의사소통의 3가지 하위영역은 상호배타적인 관계로서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VIF 값

이 1.127~1.828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VIF값의 경우 10 이하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 설정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성별($t=-4.636, p<.001$)과 직업 유무($t=-3.406, p<.01$), 종교 유무($t=3.603, p<.001$), 별거/각방 유무($t=-2.064, p<.05$), 결혼생활 유지기간($t=-3.032, p<.01$) 및 생활수준($t=2.529, p<.05$)이 결혼 만족도의 영향변인이었다. 성역할 태도의 경우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분석되지 않았으나, 의사소통의 모든 요인이 결혼 만족도의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의 요인 중에서 긴밀한 관계($t=16.312, p<.001$)는 결혼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이는 노년기의 부부들이 서로 개인적인 문제를 상의하고 격려할 뿐 아니라 비밀스런 일을 털어놓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의사소통의 배타적 관계($t=-6.501, p<.001$)와 소극적 관계($t=-5.476, p<.001$)는 결혼 만족도의 부(-)적 영향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배타적이거나 소극적인 노년기 부부일수록 자신의 결혼생활에 더 만족하지 못하고 배우자와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 표현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인은 성별과 직업 유무, 종교 유무, 배우자와의 별거/각방 유무, 결혼생활 유지기간 및 생활수준이고, 부부간 의사소통은 결혼만족도의 영향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의사소통의 긴밀한 관계는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지만, 배타적 관계와 소극적 관계는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에 결혼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의사소통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성역할 태도에서 성능력 인식은 결혼 만족도의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결혼 만족도에 성역할 태도가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밝힌 선행연구[24][25]와 차별화되는 결과이다. 하지만,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부부친밀감 사이에 서로 상관

성이 없다는 연구[1]도 있으므로 성역할 태도와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의사소통 및 결혼 만족도에 대해 알아보고, 성역할 태도와 의사소통의 차원에서 결혼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밝힘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황혼이혼을 낮추고 결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성역할 태도와 의사소통, 결혼 만족도에 부분적인 차이가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20][25]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특히 남편보다는 아내가 성역할 태도나 긴밀한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결혼 만족도가 더 낮았는데, 결혼생활에서의 역할분담이나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경우 황혼이혼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년기의 남성들은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고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노력하며, 가정에서의 역할분담을 통해 부부 사이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여성들은 너무 소극적이거나 배타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남편과 의사소통한다면 결혼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의사소통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역할과 성능력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부부간 의사소통이 보다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분명하고 남편이 가정의 경제를, 아내는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것이 노년기 부부의 의사소통을 높이는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너무 강한 성역할 인지는 소극적인 의사소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성역할보다는 성능력에 대해 더 높게 인지하는 것이 배타적이지 않은 긴밀한 의사소통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지역 사회에서는 남편들이 가정에서의 경제권

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노인의 일자리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실행과 확대를 통해 은퇴 후에도 직업을 갖거나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의하면 노년기 부부의 결혼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의사소통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부간의 긍정적이면서도 긴밀한 의사소통은 한 개인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부부 모두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노부부들이 서로를 이해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등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노년기의 성공적인 부부생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며, 이를 전달할 수 있는 노인전문가가 보다 많이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노인대학 등에 노년기 부부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홍보물을 제공하고, 홍보 책자나 홍보 영상의 제작을 통해 노년기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 아니라 노년기 부부를 위한 전담 상담기관의 운영도 요구된다.

이러한 논의와 결론 및 본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보다 나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년기 부부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전국 규모의 노년층으로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표집을 통해 연구대상의 범위를 넓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 연구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노년기 부부의 내면적인 부분까지 이해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인터뷰 등을 통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병행하여 내면 깊숙이 감추어진 부분을 다룬다면 노년기의 결혼생활에 대한 심도 깊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초고령 시대를 맞이한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노년기 부부의 결혼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이 요구되며, 부부 갈등이나 황혼 이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부교육 및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참고 문헌

- [1] 박연옥, 노년기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2] 갈라선 네 쌍 중 한 쌍이 황혼이혼, 국민일보 (2012.9.19), <http://news.kukinews.com>
- [3] 이수호, *이혼과 재혼*, 고려문화사, 2007.
- [4] 김혜숙, 이혼상담과 이혼법, 학지사, 2008.
- [5] 성영식, *황혼이혼의 원인과 대책*, 광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6] 광배희, *한국사회의 이혼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7] 김희주, 주경희, “한국적 성공적 노후척도를 활용한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41권, pp.125-158, 2008.
- [8] 현경자, “결혼의 질과 안정을 저해하는 부부갈등 영역: 성별에 따른 유사점과 차이점”,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21권, pp.158-193, 2005.
- [9] 김영혜, *유배우 노인의 성역할태도, 가사노동분담 및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10] 신화용, “남편의 은퇴와 부부관계의 변화에 대한 탐색적 고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4권, pp.117-131, 1996.
- [11] 오명자, *은퇴한 노인의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와 자아탄력성의 조절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12] 김미라,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 탐색*,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13] 김애련,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14] 김경신, 이선미, “노년기 부부갈등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 노년학연구, 제10권, 제1호, pp.31-54, 2001.
- [15] 임선영, 김태현, “노년기 부부 스트레스와 결혼 불안정성”, 한국노년학, 제21권, 제3호, pp.111-128, 2002.
- [16] 이해자, 김윤정, 부부관계(사랑과 성)가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24권, 제4호, pp.197-214, 2004.
- [17] 조혜숙 최수일, “노년기 부부관계 변인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제11권, 제11호, pp.313-328, 2011.
- [18] 김길현, 하규수, “노년기 부부관계 요인이 결혼 만족도 및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5호, pp.256-271, 2012.
- [19] 권오균 허준수,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47호, pp.7-30, 2010.
- [20] 김수진,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생활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21] 홍성례, “자아존중감과 성역할태도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기 남녀를 중심으로”, 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제5호, pp.37-51, 2006.
- [22] 김정순, *농촌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스트레스인지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23] 김선우 김태현, “남녀 노인의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1권, 제6호, pp.141-155, 2003.
- [24] 전해성, 서미아, “중년기 부부의 부부권력 및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pp.349-357, 2012.
- [25] 이은주,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문화적 민감성, 부부의사소통, 성역할 태도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남편대상 프로그램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6권, 제4호, pp.45-71, 2010.
- [26] 김영혜, *유배우 노인의 성역할태도, 가사노동분담 및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27] 김미령, “연령대에 따른 여성의 결혼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제26권, 제8호, pp.35-62, 2009.

- [28] 최규련, *한국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29] L. Gross, "Sol Worth and the study of visual communications," *Studies in Visual Communication*, Vol.6, No.3, pp.2-19, 1980.
- [30] 김명희, 최연실,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 의사소통과 부부 친밀감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제3호, pp.1-23, 2007.
- [31] M. C. Proulx, H. Helms, and C. C. Payne, "Wives' domain-specific marriage work with friends and spouses: Links to marital quality," *Family Relations*, Vol.53, pp.393-404, 2004.
- [32] G. B. Spanier, R. A. Lewis, and C. L. Cole, "Marital adjustment over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7, No.2, pp.263-275, 1975
- [33] P. Noller, and M. A. Fitzpatrick, "Marital communication in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52, No.4, pp.832-843, 1990.
- [34] 모의희, 김재환, "의사소통과 부부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4권, 제4호, pp.887-900, 2002.
- [35] 김현주,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노인부양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36] 우명순,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친밀감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37] 김정원,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적응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38] 권정혜 채규만,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1",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8권, 제1호, pp.123-139, 1999.
- [39] 이여봉, "부부역할과 여성의 결혼만족도: 연령별 주별 분석", *한국인구학*, 제33권, 제1호, pp.103-131, 2010.
- [40] G. R. Lee, "Age at marriage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39, No.3, pp.493-504, 1977.
- [41] 조정문, "결혼생활의 공평성 인지와 결혼 만족", *한국사회학*, 제29권, pp.559-584, 1995.
- [42] 유영주, *가족관계학*, 교문사, 1993.
- [43] J. M. White, "Work-family stage and satisfaction with work-family balance",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Vol.30, No.2, pp.163-175, 1999.
- [44] 장지영, 황순택, "부부의 성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7권, 제2호, pp.133-148, 2012.
- [45] 한주리, 허경호, "아내와 남편의 의사소통 능력, 논쟁성향 및 성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방송학보*, 제18권, 제4호, pp.148-190, 2004.
- [46] 김효민,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47] D. G. Myer, and E. Diener,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Vol.6, pp.10-19, 1995.
- [48] 신상식, 최수일, "노년기 여가활동과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 간의 관계", *호텔관광연구*, 제12권, 제3호(통권 38호), 2010.

저 자 소 개

임 나 현(Na-Hyun Lim)

정희원



- 2004년 2월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2008년 8월 :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 졸업, 문학석사
- 2008년 2월 ~ 현재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이사

▪ 2011년 1월 ~ 현재 : 솔트에이전시 평생교육원 전임 교수

<관심분야> : 청소년 교정, 상담, 복지실천론

하 규 수(Kyu-Soo Ha)

정회원



- 1998년 6월 : 미국, Touro 법과
전문대학원 졸업(J.D)
 - 1996년 6월 : 미국 Georgetown
법과 전문대학원 졸업(LL.M)
 - 1998년 8월 : 미국 뉴욕주변호사
· 미국 연방변호사
 - 2009년 2월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 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부
교수
- <관심분야> : 벤처창업, 경영전략, 실버경영